정보

Antonín Dvořák: The Wild

Dove (Holoubek), Op. 110, B.

198

작곡가: Antonín Dvořák (1841–1904)
작품명: The Wild Dove (Holoubek), Op. 110, B. 198
장르: 관현악을 위한 교향시
작곡 시기: 1896년 10월 22일 –11월 18일, 1897년 개정
초연: 1898년 3월 20일, Brno, Leoš Janáček 지휘
초판: 1899년, Berlin, N. Simrock
IMSLP: https://imslp.org/wiki/The_Wild_Dove,Op.110(Dvořák,_Antonín)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The_Wild_Dove_(Dvořák)

드보르자크의 The Wild Dove는 체코 시인 카렐 야로미르 에르벤의 발라드에서 출발한 단악장 교향시다. 영어권에서는 The Wood Dove라는 제목도 쓰지만, 체코어 원제는 Holoubek이다. 젊은 과부의 죄와 참회, 무덤 위에서 우는 비둘기, 마지막의 화해가 연속적인 관현악 흐름으로 이어지며, 장례 행진과 서정적인
바이올린 선율이 밝은 결혼식 장면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개요
드보르자크는 1896년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작품을 썼고 1897년 1월 이후 개정했다. 문학적 출처인 에르벤의 시집 Kytice(Bouquet)는 체코 민속 발라드를 바탕으로 한 열세 편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드보르자크는 출판사에 보낸 편지에서 이 시집을 작품의 바탕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초연은 1898년 3월 20일 브르노에서 레오시 야나체크의 지휘로 열렸다. 드보르자크가 자필 총보를
제공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1900년 4월 4일 프라하에서는 작곡가 자신이 이 곡을 지휘했다. 이 공연은 드보르자크의 마지막 공개 지휘 출연으로 알려져 있다.

출판 정보와 자료

1899년 베를린의 N. Simrock이 총보와 파트를 처음 출판했다 (총보 Plate 11194). 1955년에는 체코의 Souborné vydání díla 전집 수록판이 나왔고, Bärenreiter Praha는 Antonín Dvořák Complete Edition의 총보와 연구용 악보를 제공한다. 피아노 네 손 편곡은 관현악 원곡과 별도의 편곡 자료로 분류된다.

소요 시간

상업 음반과 기관 안내는 대체로 18–20분을 제시한다. Dvořák 공식 기록과 Bärenreiter는 약 20분, Berliner Philharmoniker는 19분, AllMusic은 19분 36초로 안내한다. Jiří Bělohlávek와 체코 필하모닉의 Chandos 녹음은 19분 08초다.

편성

목관: 피콜로, 플루트 2, 오보에 2,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2–3(베이스 클라리넷 포함 표기가 있음
), 바순 2
금관: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타악기: 팀파니, 큰북, 심벌즈, 트라이앵글 , 탬버린, 작은북
기타: 하프, 현악기

성악은 사용하지 않는다. 클라리넷과 트롬본의 세부 수는 기관과 판본에 따라 다르게 적히므로, 공연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총보의 파트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하프와 잉글리시 호른은 어두운 색채와 서정적인 선율을 잇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르벤 발라드의 서사

장례 행진과 과부

곡은 장례 행진풍의 어두운 음악으로 시작한다.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가 장례에서 슬픔을 보이지만,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남편을 독살한 인물로 드러난다. 무거운 저음과 반복되는 행진 리듬이 표면의 애도 아래 감춰진 죄를 암시한다.

결혼과 비둘기의 노래

과부는 곧 젊은 남자와 결혼한다. 결혼식의 밝은 선율과 춤 리듬이 나타나지만 , 장례 행진의 동기가 다시 끼어들어 축제의 표면을 흔든다. 남편의 무덤 위에 내려앉은 야생 비둘기의 울음은 독주 목관과 현악의
가느다란 선율로 표현되며, 과거의 죄를 현재로 불러온다.

죄책감과 죽음

비둘기 소리가 반복될수록 결혼식의 활기는 가라앉고, 과부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다. 음악은 극적인
폭발보다 점점 좁아지는 선율과 어두운 화성으로 그녀의 고립을 그린다. 에르벤의 발라드에서 여인은 결국
물에 몸을 던진다.

화해의 에필로그

마지막에는 앞선 비극을 누그러뜨리는 서정적인 바이올린 선율이 돌아온다. 드보르자크 공식 해설과 Berliner Philharmoniker는 이 부분을 화해와 구원을 향한 준에필로그로 설명한다. 원시의 비극을 그대로 반복하는
대신, 관현악은 조용한 빛과 먼 기억을 남기며 끝난다.

구조와 동기

작품은 별도 악장 없이 한 호흡으로 이어지지만 , 기관 해설은 장례 행진, 과부와 젊은 남자의 만남, 결혼식, 비둘기의 노래와 죽음, 화해의 에필로그 같은 큰 장면으로 나누어 듣게 한다. 장례 행진의 동기가 밝은
구간에도 돌아오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장면이 하나의 음악적 기억으로 묶인다.

드보르자크가 특정 체코 민요 선율을 인용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체코 문학 발라드의 리듬과 인물, 도덕적 질서를 관현악의 동기와 음색으로 옮긴 교향시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민족주의라는 한
범주만으로 설명하기보다 , 문학 서사와 후기 낭만주의 관현악의 결합에 주목할 수 있다.

제목과 번역

체코어 Holoubek은 작은 비둘기를 뜻한다. 공식 Dvořák 기록과 IMSLP는 The Wild Dove, Berliner Philharmoniker와 Boston Symphony Orchestra는 The Wood Dove를 사용한다. 두 영어 제목은 같은
작품을 가리키며, 한국어에서는 ‘야생 비둘기 ’ 또는 ‘숲비둘기 ’로 옮길 수 있다. 여기서는 출판 ·기관 자료에서
널리 쓰이는 The Wild Dove를 앞세운다.

판본과 연주

1897년 개정이 1899년 Simrock 초판에 어떤 범위로 반영되었는지는 판본별 대조가 필요하다. Bärenreiter 와 체코 전집판은 자필 ·초판 ·후대 자료의 차이를 편집 보고서에서 다룬다. 연주자는 단악장 내부의 장면 전환을 별도 악장처럼 끊기보다, 장례 행진의 반복과 마지막 화해가 하나의 곡선으로 이어지도록 템포와 음색을 조절한다.

관현악은 크지만, 모든 악기가 계속 총주로 울리는 작품은 아니다. 하프와 목관이 비둘기와 밤의 고요를 만들고 , 금관과 타악이 결혼식과 비극의 무게를 확장한다. 독주 바이올린의 마지막 선율은 큰 음량으로 덮기보다 앞선 어두운 재료를 천천히 풀어 주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주요 레코딩

Jiří Bělohlávek / Czech Philharmonic (Chandos CHAN9170): 19분 08초. 체코 오케스트라의 선명한 현악과 목관으로 문학적 장면의 대비를 들려준다.
Rafael Kubelík / Boston Symphony Orchestra 또는 Bavarian Radio Symphony Orchestra: 드보르자크 교향시 전집에서 체코적 선율과 후기 낭만주의의 폭을 함께 보여 주는
대표 연주다.
Václav Talich / Czech Philharmonic: 초기 체코 연주 전통의 중요한 기록으로, 장례 행진과
마지막 화해의 긴 호흡을 들을 수 있다.
Simon Rattle / Berlin Philharmonic: Berliner Philharmoniker의 현대적 음향으로, 큰
관현악 편성과 섬세한 목관 색채를 함께 들려준다.

주요 자료

Dvořák 공식 작품 기록, The Wild Dove: 작곡 ·개정 ·초연 ·서사 ·편성 ·수용.

Bärenreiter Praha, The Wild Dove: 작품번호, Erben의 발라드, Complete Edition과 연주 시간.

IMSLP, The Wild Dove, Op. 110: Simrock 초판 ·파트 ·편성 ·판본 목록.

Berliner Philharmoniker, The Wood Dove: 다섯 장면 표제와 서사 ·화해의 에필로그.

Boston Symphony Orchestra, The Wood Dove: Erben·Kytice, 초연과 편성 해설.

Naxos/Chandos CHAN9170: Bělohlávek·체코 필하모닉 녹음과 19분 08초의 트랙 정보.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6:08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06:08 UTC by 안준영